

# '동북아 해양중심도시 위상' 세계에 널리 알린다

해양관련 최대 국가기념 행사인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가 군산에서 열린다. 군산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바다를 품다! 미래를 담다!'라는 주제로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다의 날'은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에 따라 1996년 처음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며,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정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시는 이번 '바다의 날 행사'를 통해 올해로 개항 118주년을 맞아 새만금을 중심으로 21세기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항구 도시 군산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고군산군도와 근대문화를 연계한 관광자원 홍보,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해상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해양도시 위상 제고 등 도시브랜드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념식에 이어 6월 4일까지 해양레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주요기념행사 알아보기”

시는 이번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맞아 '해군의 장대 시범공연', '퓨전타악 국악공연', '군산시립합창단의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해양수산관계자 및 시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포대첩 재현행사'와 '국민화합 해초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해양수산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차세대 해양운송수단인 위그선의 전시와 탄소섬유로 만든 레저 보트의 전시 및 시승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발자취와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 모습을 전시하는 특별전시관등을 마련하고 군산 개항 118주년 변천사와 새만금 특별 사진전시회, 그리고 한 줄일 어린이 그림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 “체험거리 가득... 부대행사 다채”

이번 바다의 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먼저 신치항 일원 바다축제장에서는 카약·요트체험과 동력보트시연, 그리고 해양어드벤처 체험장 등 해양레저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선박모형 만들기, 해양환경 체험교실, 포토존 나도 해양경찰, 해양경찰 장비전, 수상 오토바이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은파호수공원에서 수상사과대비 대국민 수상구조 훈련과 군산 내항의 진포해양테마공원 체험을 진

행한다. 특히 신시도 어촌체험마을에서 진행될 독살, 개막이등을 이용한 전통어업체험과 바지락캐기 갯벌체험, 신치항 일원에서 열리는 갑오징어와 꽃게등을 주제로 한 수산물 축제는 항구도시 군산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재미를 더하다... 연계행사 관심 집중”

바다의 날 행사에 재미를 더할 연계행사도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새만금 아미도 다기능부지에서 진행될 제1회 새만금 노마드 축제가 6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제1회 새만금 노마드 축제는 유채꽃과 함께 즐기는 야외캠핑장 체험과 불꽃퍼레이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유목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박대요리 경연대회가 31일 신시광장과 바다축제장에서 개최되며 바다영화상영, 농수산특산물 홍보부스, 해양수산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이 행사장 일원과 시 전역에서 진행되어 관광객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시에서는 이번 바다의 날 행사를 통해 그동안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어항 개발과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주변 장치, 무녀1구, 신시·신치항 등 4곳의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고군산군도 최서측에 위치한 유인도서 말도, 명도, 방축도와 무인도서인 보봉도, 광대섬을 포함한 5개의 섬을 4개의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세계최초의 사업', 그리고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사업과 신

해군의장대 시범공연 등 식전행사 시작으로 위그선 전시 등 추진

카약·요트·해양어드벤처 선박모형 만들기 등 즐길거리 마련

새만금 노마드축제·박대요리대회 바다영화 상영 등 연계행사도 펼쳐



시무녀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해양관광도시 군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문동신 시장은 "군산에서 열리는 이번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그동안의 바다의 날 기념행사 중 가장 풍성하고 알찬 내용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새만금 중심도시 군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새만금 신항등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로 환황해권 국제 물류 거점도시, 그리고 해양관광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21세기 신 해양수산 산업 발전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군산=김필곤 기자



## 扶來 부안 고은 이동원(鼓隱 李東元)선생 추모

# 제5회 전국 농악 경연대회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대상 대회 〉

**일시 : 2017. 5. 5(금) 09:00 ~ 15:00**

**장소 : 부안초등학교 운동장**




※ 주최/주관 : 부안농악보존회, 전주매일신문사 ※ 후원 : 대한민국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군의회